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	 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		배포일시	2021. 6. 15.(화) / 총 3매(본문3)	
국토교통부	건축안전과	담 당 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오진수, 사무관 최민중, 주무관 노운용 • ☎ (044) 201-4987, 4989, 4986 	
	건설안전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한명희, 서기관 정덕기, 사무관 안일찬 • ☎ (044) 201-3573, 3552, 3562 	
행안부	산업교통 재난대응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허익배, 사무관 한효종 • ☎ (044) 205-6330, 6337 	
광주광역시	도시정비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류승원, 사무관 최문선 • ☎ (062) 613-1750, 1770 	
광주시 동구청	주민안전과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김연주, 계장 정홍은 • ☎ (062) 608-2800, 2801 	
소방청	동부소방서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단장 김석순, 팀장 전재철, 구조주임 권승철 • ☎ (062) 613-8460, 8471, 8463 	
광주경찰청	112치안 종합상황실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실장(총경) 김학남, 관리팀장(경정) 임승혁 • ☎ (062) 609 - 2029, 609-2329 	
보도일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

국토부, 광주 붕괴사고 제4차 중수본 회의 개최

- 중수본부장인 노형욱 장관 주재로 개최

- 피해자 총력 지원,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, 재발방지대책 당부

□ 국토교통부(장관 노형욱)는 6월 15일(화) 광주 동구 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제4차 중앙 사고수습본부(이하 중수본) 회의를 개최하였다.

○ 중수본부장인 노형욱 장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는 사고 수습, 피해자 지원, 원인조사, 후속대책 등에 대한 각 부처와 지자체*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, 향후 협조 필요사항 등을 논의하였다.

* 참석: 국토부 장관(본부장·주재), 행안부, 광주 경찰청, 소방청, 광주시, 광주시 동구청

□ 이날 회의에서는 다음 사항을 논의하였다.

① 우선, 각 기관별 사고 수습 경과 및 유족 장례, 의료, 재난 심리 지원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치에 대해 보고받은 후

* (장례) 유족자 1:1 전담직원제 운영(장례종료 시에도 지속)

(의료) 간병인 배치, 1인 병실 제공, 환자·보호자 필요물품 구입 지원 등

(심리)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

- 피해자 및 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 모두 최선을 다하고,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보상 협의 등에 대해 더욱 가속화하기로 하였다.

② 다음으로, 경찰 수사와 국토부 중앙건축물 사고조사위원회(이하 사조위)를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속히 규명하기로 하였다.

- 수사 결과가 나오면, 우선 유가족들에게 상세히 설명 드릴 계획이며 밝혀진 바에 따라 관련 책임자는 엄정히 책임을 묻기로 하였다.

- 사조위 조사는 공정하고 신속히 진행하되, 건축구조학 등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살필 계획이다.

③ 또한,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전국 건축물 철거현장의 공사중지 및 안전점검 요청(6.11)에 따라 지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

* (광주시) 철거공사 26개소 등 공사현장 86개소 점검, (동구청) 13개소 점검

- 특히, 국토부는 지자체, 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철거공사 현장을 선정하여 합동점검을 추진 중(6.14~30)에 있다.

④ 마지막으로, 사조위 조사결과(8.8 발표예정)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토록하고, 특히 제도뿐만 아니라 해체계획서 준수와 같은 현장 이행도 문제가 없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다.

- 사고 원인규명과는 별개로 언론 등에서 제기된 철거공사 감리, 시공 등에 관한 문제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조속히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.

□ 노형욱 장관은 “사고를 안타깝게 생각하며, 고인이 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전한다”면서, “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피해자와 가족들을 지원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○ 아울러, “철저한 사고조사와 함께, 법이 제정되어도 사고가 나는 데는 현장이행에 미비점이 있다는 것이므로 건설 절차와 주체별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꼼꼼히 살펴 개선하겠다”고 강조하면서,

○ “국민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전국 모든 현장의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”이라고 말했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건축안전과 최민중 사무관(☎ 044- 201-4989) 및
건설안전과 안일찬 사무관(☎ 044-201-356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